우리는 지금 살아서 저승길을 공부하는 거예요

☞ A17면에서 계속

정신을 뺏어 먹고 사는 거니깐 정신을 뺏기지 않으려면 정신계의 내 주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거요. 정신을 뺏어 먹고 정신을 뺏기고 이렇게, 육이 있는 거는 육을 뺏어 먹고 죽이고 살지만 이 사람들은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뺏기곤 그때서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스러지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깐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의 곤충의 주머니를 다 벗어 버리기 위해서 모든 거를 그대로 놓고 가야 한다. 그대로 남을 섭섭지 않게 해야 한다. 말을 항상 조심해서 해야 한다. 똑같은 말이라도 이쪽이 성을 내고 하면 저쪽도 감촉이 좋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거 하면 이 곤충이 빨리 진화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빨리빨리 되려면 그렇게 해서 이게 둘이 아니어야 한다.

이 마음공부 하는 분들은 반 이상이 벌써 다 줄고, 어떤 분들은 반이 줄고, 어떤 분들은 삼분의 이가 줄고, 그냥 요만큼 남고 다 줄어 버리고 없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이거는 누가 일러 줘서 아는 게 아니라 벌써 이게 통하거든요. 감촉으로 다, 다 통해요. 악성은 악성대로 통하고 선의면 선의대로 통하는데, 악성은 악성대로 왜 선의로다가 이끄느냐. 독을 빼면 선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독성을 빼기 위해서 이런 거를 저거 하면 독성이 다 없어지면서 이것이 99%가 부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에 이 중세계를 떠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왜 태어나게 돼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세상이 이러니 세상대로 따라가려니까 얼마나 고초가 많습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이 사람으로 치지 마시고 곤충의 주머니로 치시고 항상 ‘그 곤충 주머니나 곤충이나 둘이 아니고, 우리도 이런데 모두 딴 사람들도 다 둘이 아니겠지.’ 하고 모두가 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때에 바로 그 믿어지는 거, 그 방망이 하나면 이 온 우주를 때려잡고도 남음이 있어요. 이거, 이 방망이요. 이 주인공이라는 자기 뿌리인 불성 말이에요. 이거면 이 세상을 다 잡고도 남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금생에 꼭 깨달음을 얻으리라 했는데…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엔 금생에 꼭 깨달음을 얻으리라 다짐했는데 갈수록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 화나는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합니다. 어떡하면 이 마음의 힘이 단단해질 수 있을는지요.

답변 그런데 이 진짜 즉석으로 들어가는 이 공부는 줬다 안 줬다, 잘했다 안 잘했다 이런 논의가 없어요. 따귀를 맞았으면 맞은 대로. 또 줬으면 준 대로 내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맞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관여를 왜 합니까. 금방 요기서 요렇게 따귀를 때렸는데 금방 돌아갔으면 그게 없어지죠. 여기서 잘못됐다고 꼬집고 착을 두고 그냥 애쓰지 말라 이겁니다. 이건 금방 또 없어져요.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데 어느 때에 그것을 때렸다고 하며 어느 때에 내가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부처라고 세울 수 있을까요? 공부를 했다고 떳떳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이름해서 세울 게 뭐 있겠습니까? 묵묵히 걸어가면서 바로 그렇게 물 한 그릇 마시면 대장부 살림살이 족할 것을 말입니다. 아까도 시를 한 수 읊었듯이

“음지 양지 없는 천지
한 손 들어 삿갓 쓰고
해와 달을 석장에 걷어 메고
푸른 산 한 발 딛고 물 한 그릇 떠 마시니
대장부 이만하면 족하지 않을까.”

책을 읽어서 수많은 팔만대장경을 외로 읽고 거꾸로 읽고 이래도 이 자기의 참 생명수는 맛을 못 봐요. 책이 자길 보고 자기가 책을 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글자를 볼 때에 글자를 외우고 외운 채로 말을 합니다. 몸 떨어지면 글자도 말도 다 떨어질 것을.

그런데 이 선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마음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데서 선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손들을 기를 때 얼마나, 그 자손이 만약에 물에 빠지게 됐다거나 공부를 못해서 영 낙오가 됐다거나 이런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 사랑하는 고 마음. 고것이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세세생생에 꺼지지 않는 불! 누구나가 감춰진 불이 다 있어요. 중생도 불이 있고 부처도 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이 없으니까 보지 못해서 그 빛을 발하지 못할 뿐이지 중생이라고 해서 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모르니까 바로 자기 빛을 자기가 못 보는 것뿐입니다.

어느 스님이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엿하게 가다가 고만 어느 뱀소굴로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잡아서 다시금 또 사람 사는 데로 인도를, 인도환생을 시켜 놓고 껄껄 웃으면서 “내가 지옥으로, 나는 천당으로 가지 않고 지옥으로 가서 이렇게 건지려고 했더니 지옥도 천당도 둘이 아닐세. 삼라만상 내 마음에 다 들어 있으니 나지 않는다, 난다 개의할 게 없노라.”

그것은 보이는 모습을 가져야 산 게 아니거든요. 모습을 안 가졌어도 나 아님이 아니니 모두 내 모습이에요. 모두가 내 모습, 내 마음. 모른다 할지라도 한번 자기가 돼 볼 수 있는 아량과 지혜를 갖는다면 분단이 생기지 않고, 의리가 깨지지 않고, 화목하게 되고, 이해가 되고 슬기로워지고, 바로 이 도의 심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람사람이 누구나가 급하게 화가 나면 남을 생각할 여지가 없죠. 그러나 한번 숨을 들이쉬면서 안으로 굴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는 말도 공손하게 나가고, 또 한번 저 사람이 돼 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이랬을 때 바로 화목한 것입니다.

화목을 모르고 공한 도리를 모른다면 우리가 지금 천차만별로 돼 있는 생한 도리를 모른다 이겁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도 가질 게 없어서 나는 공부를 했는데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 그러면 가는 데마다 나고, 가는 데마다 내 자리고, 가는 데마다 내 아픔이고, 가는 데마다 내 웃음이고 즐거움이고 그러니 구태여 내 몸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또 어떻게 낙오가 될까 걱정하고, 내가 부처가 되려고 앨 쓰고, 내가 깨달아야지 하고 앨 쓰고, 그렇게 발광 안 해도 되지요.

그것이 깨달으려고 앨 쓰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한데 주인공에서 나온 거 주인공에다가 모든 거 일체 다 놓을 줄을 알아야 사방이 터지지요. 이거는 문이 많은 데서 문을 찾으려니까 어렵고 문이 하나도 없는 데서 문을 찾으려니까 또 어렵다 이겁니다. 이 모두가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이 자체가 그대로 참선이인 거예요. 우리가 앉는다고 하고 앉고, 선다고 하고 서는 그런 사람, 공부 백 날이 가도 못 합니다.

관하는 걸 기복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질문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마음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참된 깨달음보다 늘 자기 가족의 안위나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여 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걱정이 좀 됩니다. 큰스님께서는 늘 기복으로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기복이 아닌지요.

답변 기복이라기보다, 당신이 만약에 늙어서 죽을 때에, 죽을 때 남 걱정하게 됐소? 내가 부지런히 지금 급해서 길을 간다면 옆에서 싸운다, 옆에서 나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 길을 급하게 달려가지 여기서 참섭하고 그 급하게 지금 가서 일할 거를 폐지시키겠소? 그렇죠? 그럼 극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죽으려고 깔딱깔딱할 때 옆에서 잘못하고 잘한다고 그거 참견하게 생겼느냐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자기가 나왔던 구녁으로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던 구녁에다가 자꾸 관하니까 거기에서 자꾸 힌트를 주는 거죠. 힌트를 주고 어떤 때는 잘되게 했다가 안되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되게 하는 거를 그대로 ‘안되게 하는 것도 너다.’ 그러고 거기다가 놔야 될 텐데…. 그게 굴려 놓는 거거든요. ‘안되게 하는 것도 너니깐 되게 할 수도 있잖아!’ 하고 거기다 놔야 굴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를 다 놔 놓고 자기가 생각 그 자체를 그냥 지금 현재의 생활을 판단해 가지고, 자기 분수도 생각해서 거기다 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도 빠질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남이 그런다고 하는데 남이 그러기 이전에 남 걱정하는 것도 끄달리는 거거든요, 그게.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참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서 지금 죽은 저승엘 가는데.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고요, 모든 거를, 보기에 안 되는 거 같고 보기에 좀 트릿한 거 같고 못나게 보이고 또 그러더라도 ‘어, 내가 전자에 그렇게 못났을 때의 내 모습이로구나!’ 하고 자기 탓으로 돌려야 돼요, 모든 걸. 그러지 않으면 살아서 저승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그걸 잘 알게 해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저승길을 공부하는 거예요. 저승길을 알아야, 우리 물질세계에 살아서 사는 거는 다 알았으니까 저승세계에 들어가서 알아야, 양면을, 삼세를 둘 아니게 다 안아야 내가 누구를 건져 준다, 뭘 한다 하는 거죠. 지금 신도님들도 자꾸 그냥, 그대로 믿고 자기한테 하면서 그대로 옆의 사람, 꼭 이거는 돌봐 줄 사람, 즉 말하자면 돌봐 주지 않을 사람이나 돌봐 줄 사람이나 자기한테 인연이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관해 주고, 또 일러 줄 수 있는 사람은 관하라고 일러 주고, 그러지 못할 사람은 그냥 관해 주고 하는 거죠. 오다 가다가도 그렇게 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아유, 당신이 일러 줘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아유, 다 나았습니다.” 이러고 하고 잘됐다고 하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아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런 소리도 또 안 하죠. 그렇지만 남을 건진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아픈 사람이든 어떻게 극난에 빠져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괴로워서 자기 편안하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따지고 보면 내가 당신네들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괴로워서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한다고 말도 할 수가 없다.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깐 말입니다. 그게 부처님 법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공법이라고요. 우리들도, “부처님은 공법이 있고 우리는 없나?” 그러지만 벌써 우리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하나하나가 다 공법이에요. 그 많은 생명들이 다 한데 더불어 같이 살면서 같이 행하니까 공법입니다.

> 우리가 지금 죽으려고 깔딱깔딱할 때
> 옆에서 잘못하고 잘한다고
> 그거 참견하게 생겼습니까.

집안 우환이 산소의 영향인지요

질문 집안에 우환이 자꾸 생겨서 조상님 산소에 문제가 있을까 하여 천도재도 지내고 그랬는데 정말 산소의 영향이 있는 걸까요?

답변 그것도 마음에 달려 있어요. 어떤 때는 신도들이 와서 산소를 잊어버렸다고 할 땐 그 애로를 없애 주기 위해서 ‘어떡하나?’ 하다가 “그, 이렇게 가면 그 무너진 산소 보이지 않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서들 보는 거는 고 장소만 보지만 이 부처님 법으로 이 안에서 주인공 자체 자불이 보는 거는 아주 세밀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산소를 잘못 썼다 이래도 영혼만 건져 내면 되는 거죠. 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산소 탓이라고 생각질 마세요. 산소 탓은 아니니깐요. 그러니까 관할 줄 알면은, 관하고 이러면은 그게 다 없어져요.

그렇게 하는 대로, 관할 때도 ‘내가 이러지 않게 이끌어 가는 것도 너 아냐?’ 하고, ‘나를 지켜 주는 것도 너 아냐?’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살게 하는 것도 너 아냐.’ 하고 모든 거, ‘가정이 화목하게 하는 것도, 남한테 그 찌끄럭지로 취급받게 하지 않는 것도 너 아냐?’ 하고 ‘먹고살게 하게 하는 것도 너고.’ 이렇게, ‘귀인이 되게 허는 것도 너고.’ 이렇게만 관한다면 산이 문젭니까?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9년 8월 25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